

## 미야케 신사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마쓰바라 6 개 신사 순례지의 하나. 헤이안시대 전반인 942 년,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제신으로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밖에 스사노오노미코토, 혼다와케노미코토도 모시고 있다. 이 지역은 고분시대에 천황가의 직할지로 추정되는 요사미노미야케의 유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야케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미치자네를 모시기 이전에는 하지 일족(후에 스가와라 씨로 개명)의 씨족신인 아마호히노미코토를 모시는 호히노 신사가 있었다.

본전에는 등신대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좌상이 안치되어 있으며 목을 조립하는 형식의 머리부는 남북조시대의 것이다. 근세 이후에 보수된 몸통 안에는 1622 년에 쓰여진 뉴우 강식과 고케라경의 법화경 8 권, 사리 2 알이 수납되어 있었다. 또한 근세 초기 고노에 노부히로 자신이 그리고 찬을 쓴 도당천신상, 고요제이 천황이 그린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초상화, 고노에 모토히로가 쓴 ‘나무 덴마다이지자이덴진(南無天滿大自在天神)’ 명호 등 미치자네에 관련되는 전승품도 많다. 참배당 앞에는 아직 아마호히노미코토의 사당이었을 때 미치자네 공이 규슈로 좌천되면서 이 지역을 지났을 때 이 신사에 잠시 들러 앉았다는 돌이 남아 있다. 이 돌은 ‘가미가타이시’ 라 불리며 쓰마야 씨가 1862 년에 표석을 세웠다.

이 밖에도 남북조시대의 아미타삼존화상과 고보 대사상, 에도시대에 황실에서 사용된 짚신 ‘오메부토’ 등이 있다. 사이호지 절(미야케 나카)로 옮겨진 헤이안시대 후기의 11 면 관음상은 동 신사에 부속되었던 바이쇼인 절(현재 사무소 자리)의 본존이었다.

본전 북쪽에는 마찬가지로 미야케에 있었던 엔기시키 신명장에 이름을 올린 사카야 신사를 합사하고 있다.